

오시코 신사

이 신사의 역사는 일본 전역에 역병이 만연했던 서기 97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위 중이었던 게이코 천황(25~130)의 꿈에 두 명의 신이 나타나 높이 5.7m, 폭 6.4m, 두께 7.2m, 무게가 약 453,000kg인 거석으로 이시노호텐(돌의 보전)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통반석은 삼면이 암반으로 막힌 커다란 구멍 속에 솟아있으며, 한 면에는 원추형 돌출부가 있습니다. 바위의 기저부에는 연못이 있어서 아래에 있는 기둥이 보이지 않아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로부터 특별한 형상과 놓여 있는 방법이 특이하여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우키이시(浮石, 부석)'라고도 불렸습니다. 신사의 본존(신이 깃든 물체)이 되었습니다.

신사의 본당은 덴포 13년(1844)에 건립된 목조 건축물로 나가레즈쿠리(비대칭 팔작집) 양식의 지붕이 특징입니다. 1807년에 소실된 후 편백 껍질로 이은 지붕이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1979년에 편백 껍질 지붕에서 동판 지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젠덴(前殿)이라고도 불리는 마이덴(舞殿)은 이리모야즈쿠리(팔작지붕) 양식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19세기 중반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도 하이덴(참배하기 위한 건물)과 마찬가지로 1807년에 소실되었으며, 이후 재건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사의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마덴(소원 등을 적어 봉납하는 나무판인 에마를 걸어두는 곳)에는 산가쿠(수학 문제가 그려진 에마)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에도 시대(1603~1867)에 수학 애호가 그 해답을 일본 전역의 신사 불각에 봉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